



권력 위의 권력 슈퍼리치

존캠프너 지음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슈퍼리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 부호 순위가 발표되면 후속 기사와 출판물이 쏟아진다. 그러나 슈퍼리치는 우호적인 관심 외에도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을 받기도 한다.

영국 문화기관인 터너 컨템포러리 이사회 의장인 존 캠프너가 슈퍼리치들의 부와 영향력을 분석한 '권력 위의 권력 슈퍼리치'를 펴냈다.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1부에는 최초 부동산 재벌 로마 공화정 시대의 크라수스, 고대대금업자에서 예술의 후원자가 된 메디치, 철강왕에서 교육 후원자로 탈바꿈한 카네기 등이 등장한다. 2부에는 실리콘 벨리의 컴퓨터 천재들과 월스트리트와 시티 오브런던의 금융인들 등 현대 슈퍼리치들이 나온다. 이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평판관리와 선배들의 꾀적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수용했다는 점이다.

〈도서출판 푸른숲·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앤서니 도어 지음

플리처·카네기 메달상 수상작

2015년 플리처상 수상작인 앤서니 도어의 장편 소설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전 2권)이 출간됐다. 이 책은 장님 소녀 마리로르와 고아 소년 베르너가 2차 세계 대전 전후로 겪는 10여 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아름다운 문체와 감동적인 플롯,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감 나는 묘사로 언론과 평단의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출간된 이 책은 뉴욕 타임스 '올해의 책' 10권에 선정됐고, 미국 내에서만 100만 부 넘게 판매했다. 지난 6월 '앤드루 카네기 메달 상'을 수상했다.

주인공 마리로르와 베르너는 아파를 잃고, 시력을 잃고, 가난과 전쟁에 맞서는 등 마음에 상처를 간직한 순수한 영혼이다. 이들은 세계 대전이라는 참혹한 상황에 맞닥뜨린 후 정체가 무엇인지, 삶에서 지켜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시련대에 끊임없이 오른다.

〈민음사·1권 1만3500원, 2권 1만45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철학·문화·사회·경제... '그림' 속에 '고전' 있다

세상의 모든 교양, 미술이 묻고 고전이 답하다

박홍순 지음



그림과 언어는 정보 전달 차원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다. 글이 추상적 개념을 서사하는 특징을 지닌 반면, 미술 작품은 한 화면 안에 집약적 정보를 담는다. 두 매개체의 서로 다른 장점은 하나로 결합될 때, 상상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미술관 옆 인문학'의 저자로 알려진 박홍순 씨가 펴낸 '세상의 모든 교양 미술이 묻고 고전이 답하다'는 그림과 언어로 고전 읽기를 시도한다. 미술 작품을 통해 고전의 해석을 견인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데카르트의 저서 '성찰'과 레브란트의 작품 '철학자의 사색'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자는 언어로 된 책이고 후자는 그림으로 된 미술작품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잘못된 견해를 참인 것인 양 받아들여왔다. 그렇

게 불안정한 원칙을 근거로 쌓아 올린 것은 매우 의심스럽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문에 있어 확고부동한 것을 이룩하려 한다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견해로부터 벗어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새로이 출발해야만 한다." (데카르트 '성찰')

"레브란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철학자의 사색'은 그가 '빛의 화가'라 불리는 이유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사색에 잠긴 철학자를 묘사한 이 그림은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철학자의 명상이 도달한 깊이를 느끼게 해준다. 빛은 어둠이 짙을수록 도드라져 보이는 법이다. 철학 같은 어둠에서는 약간의 빛만으로도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레브란트 '철학자의 사색'에 대한 저자의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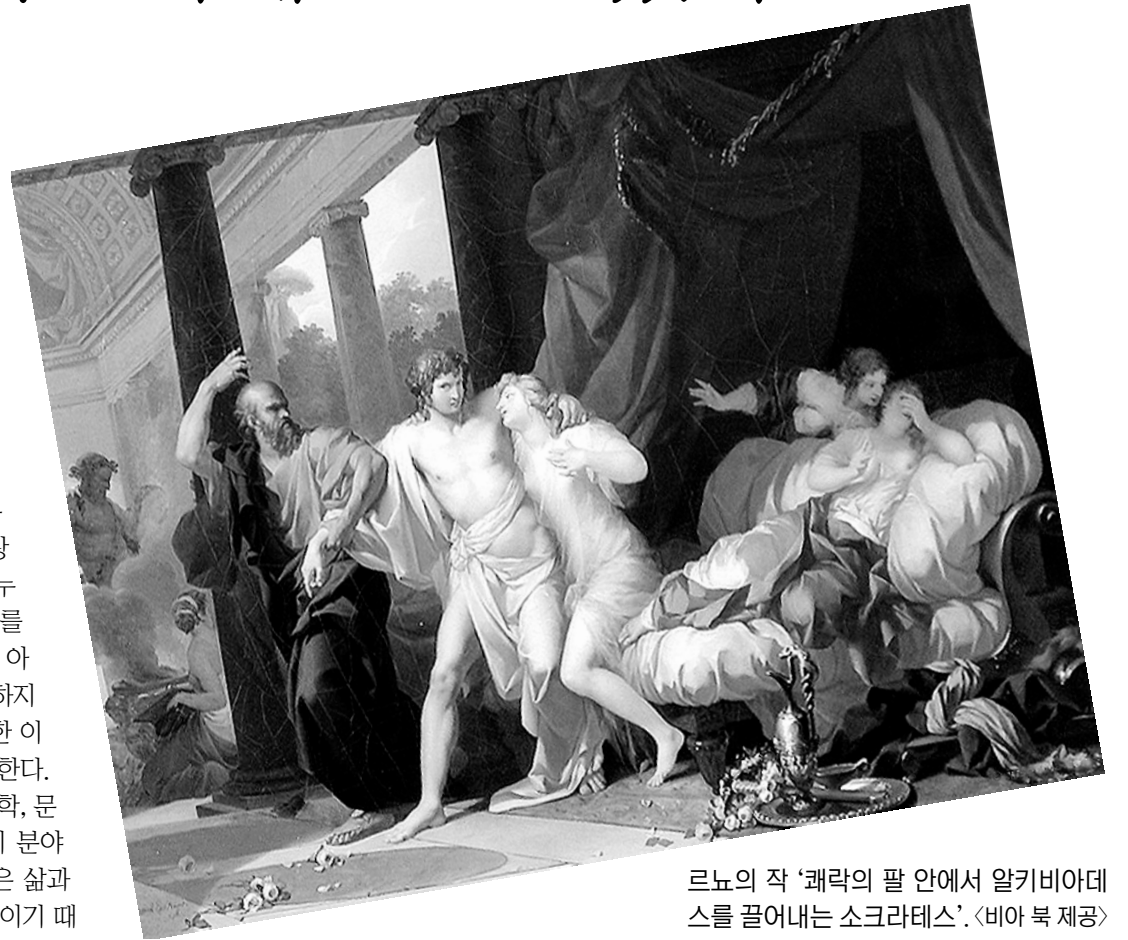
화가 레브란트와 철학자 데카르트가 교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단지 레브란트의 그림과 데카르트의 문제의식 사이에는 일정 부분 교집합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 박홍순은 레브란트의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에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명제를 떠올린다.

이 책의 기술 방식은 위의 예에서 보듯 미술을 매개로 한 고전 읽기다. 철학, 문화, 사회, 경제 분야의 18개 핵심 고전들의 내용을 18명 화가의 그림 54점으로 이해를 돕는다. 각 장의 도입부에 미술 작품을 실어 고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해석의 다양성을 복돋운다.

저자가 이 같은 고전 읽기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실적으로 많은 이들이 고전 독서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나톨 프랑스가 "고전이란 누구나 한번쯤 읽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책"이라고 한 이유와도 궤를 같이한다.

고전 가운데 철학, 문화, 사회, 경제 네 분야에 초점을 둔 것은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압축적으로 읽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철학에 길을 묻다'에서는 시대별로 이성을 둘러싼 관점을 비교한다. 고대 이성을 대표하는 플라톤의 저서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르노의 그림 '쾌락의 팔 안에서 알키비아데스를 끌어내는 소크라테스'를 묶는다. 당시 그리스의 정치가 알키비아데스가 여인들과 함께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소크라테스가 그



르노의 작 '쾌락의 팔 안에서 알키비아데스를 끌어내는 소크라테스'. (비야 북 제공)

를 끌어내리는 장면이다. 그림은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 '이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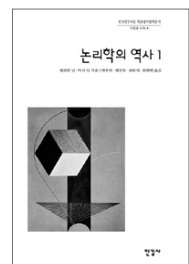
'살맛나는 사회를 위하여'에서는 법, 제도, 관료제, 대중사회, 자유 등 현대사회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고전을 분석한다. 베버의 저서 '경제와 사회'를 다비드의 그림 '테니스코트의 서약'으로 읽는다. 베버는 제도화된 구조와 절차는 안정과 효율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견지

했다. 다비드의 미술 작품은 프랑수아 혁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다. 근대 민주주의와 근대 국가의 출발을 알린 역사적인 장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책은 미술과 고전을 토대로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킨다. 그림을 언어라는 고전 이해의 동반자로 삼은 효과다.

〈비아북·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논리학사 분야 독보적인 지위 누린 책



논리학의 역사 1

윌리엄 날·마사 날 지음

논리학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렸던 '논리학의 역사'가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기획 시리즈로 나왔다. 대부분 논리학 하면 머리 아픈 학문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논리학은 토론, 글쓰기, 면접 등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학문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부부였던 윌리엄 날과 마사 날이 13여 년에

걸쳐 공저한 이 책은 1963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독보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이 책의 번역은 한국논리학회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박우석·배선복·송하석·최원배 등 4명의 역자가 13년의 작업 끝에 완료했다.

저자인 윌리엄 날·마사 날은 논리학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에 초점을 두고 기술한다. 단순히 논리학에 관한 모든 사실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대신 '이야기가 이어지고 역사적인 조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즉 나름의 스토리텔링으로 논리학의 어제와 오늘을 조망한 것이다.

저자들은 2500여 년에 걸친 논리학사를 12장으로 기술한다. 1~3장은 고대 논리학, 4장은 중세 논리학, 5~6장은

근대 논리학, 7~12장은 현대 논리학을 다룬다.

긴 논리학의 과정에서 논리학자들은 우리가 날마다 쓰는 컴퓨터가 실은 길고 긴 논리학사의 선물이란 강조한다. 인간이 참으로 증명하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설정이 곧 계산 가능성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사실도 덧붙인다.

"우리의 일차적 목적은 우리 시대의 논리학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생각들이 언제 처음 출현했는지를 기록하는 데 있었다. 이런 작업은 가치판단에 기초한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에 맞게 세운 계획을 따랐고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한길사·1권 3만2000원·2권 3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

24년만에 6권 완간... '영웅'을 만나라



역사 속의 나그네 전 6권

복거일 지음

지식인, 소설가, 시인, 사회평론가 등... 작가 복거일을 상징하는 수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소설가'야말로 가장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직함이다. 지난 1987년 장편 '비명(碑銘)을 찾아서'를 발표하면서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선 그는 미래 소설, 지식소설, 과학소설을 펴내며 자신만의 문학의 길을 걸어왔다. 이번엔 6권으로 발간한 대하소설 '역

사 속의 나그네'는 지난 1991년 세권을 출간한 뒤, 만 24년에 걸쳐 완간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당시 지적인 소설에 호의적이지 않은 문단 풍토에서도 그는 "소설은 모든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김현의 격려를 받으며 집필을 지속했다.

"이 참담한 시공간 안에서 지식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에서 출발한 작품은 '영웅'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설이다. 특히 간암 투병 중에도 죽음과 경주한다는 마음으로 창작에 몰입한 복 작가의 투혼은 '작가는 글을 쓰는 존재고, 글로 말한다'는 가장 고전적인 명제를 떠올리게 한다.

〈문학과지성사·각 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Advertisement for Shangri-La Biachi Tourist Hotel. Includes text: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뤘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SHANGRIA BIACHI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